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금융]

- The Economist: 미국 은행가, 전례 없는 호황...왜 우려하고 있는가?

[금융]

- Bloomberg: 무역 불안 고조에 아시아 통화 당국 자국 통화 방어 나서

[무역전쟁]

- The Economist: 미중 갈등, 위험성 드러나고 있다

[취업 비자]

- WSJ: 미상공의, 트럼프 행정부에 10만불 H-1B 비자 소송

[보험]

- WSJ: 치솟는 주택/자동차 보험료, 상한선 논의된다

[에너지]

- McKinsey: 2025년 글로벌 에너지 전망 보고서
- Bloomberg: 오일가 하락세 유지...투자자들 미중무역 논의 주목
- WSJ: 선주 대상 탄소배출요금, 미국에 의해 지연돼

[전기차]

- WSJ: 미국의 전기차 후퇴 기조를 따르고 있는 전 세계 국가들

[중국경제]

- WSJ: 중국 경제 3분기, 올해 목표 미달

[미국 금융]

The Economist: America's bankers are riding high. Why are they so worried?

미국 은행가, 전례 없는 호황...왜 우려하고 있는가?

- 지난 한 해 동안 미국 금융기관들은 주주들에게 27%의 수익을 안겨주었는데, 이는 기술주를 제외한 다른 주식들의 10% 수익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이다.
- 미국 은행가들은 높은 이자 수익과 급증하는 거래량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곧 규제도 완화될 예정이다.
- 이는 낙관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요 은행들의 주식 성과를 추적하는 지수인 KBW 은행 지수의 주가수익비율은 14.5인데, 지난 20년 동안 이보다 높은 수준을 보인 적이 없었다. 이는 투자자들의 기대치가 지나치게 높음을 의미한다.
-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정부 섯다운으로 경기 지표는 불확실해졌으며, 사모펀드 Tricolor와 First Brands가 파산하면서 고레버리지 기업의 부실 위험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 JP모건의 실적은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을 크게 웃돌았으나 Tricolor의 파산으로 1억 7천만 달러의 손실을 입게 되었고, 이로 인해 주가가 2% 하락한 상태이다.

- 또한, 민간 대출에 투자하는 기업의 실적을 추적하는 S&P BDC Index(business-development-company index)가 올해 15% 하락하면서 민간 대출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 신용평가기관 Moody's는 이에 관해 주식 시장 황금기는 끝났다고 평가했다.
- 은행업계는 사상 최고 실적을 내고 있으나, 높은 기대와 시장 과열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1) 민간 대출 시장의 불안정성이 완화되고 2) 관세가 경제를 침체 시키지 않으며 3) 인공지능 붐이 계속된다면, 규제 완화 이후 2,000억 달러 이상의 자본이 시장에 풀리게 되면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CHART: THE ECONOMIST

The Economist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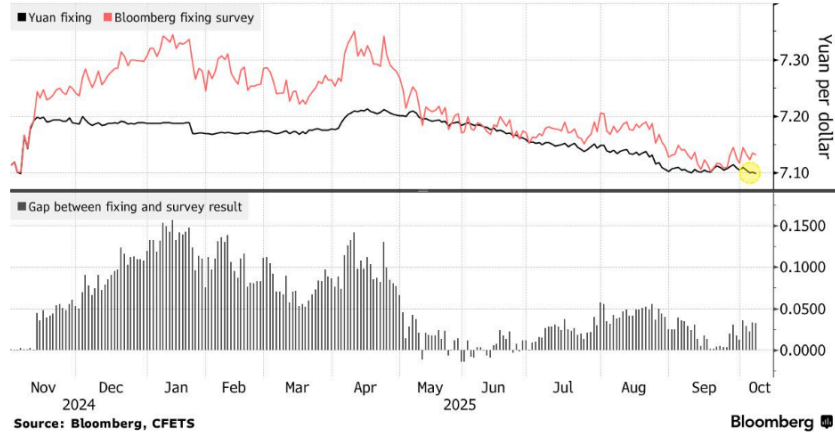
[금융]

Bloomberg: Currency Officials Go on Offensive as Trade Angst in Asia Mounts

무역 불안 고조에 아시아 통화 당국 자국 통화 방어 나서

- 무역 전쟁이 심화되면서 아시아의 주요 경제 정책 입안자들이 자국 통화 방어에 나서고 있다.
- 중국, 인도, 일본, 대한민국의 당국자들은 자국 통화를 보호하기 위해 달러 매도, 환율 조정 등의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 인도 중앙은행은 달러를 매각하며 루피화 가치를 안정시키려 하고 있고, 중국은 위안화 기준환율을 1년 만에 최고치로 고시하기도 했다. 한국은 원화의 급격한 변동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일본 또한 안정적인 외환 거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시장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들이 아직은 초기 단계에 불과하며 향후 당국이 투기를 억제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트럼프의 중국과의 무역전쟁 발언 이후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은 당국의 추가 개입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China Boosts Yuan Fixing Amid Trade Tensions



Bloomberg 기사

[무역 전쟁]

The Economist: The America v China spat reveals a dangerous dynamic 미중 갈등, 위험성 드러나고 있다

- 중국 상무부가 배터리 및 희토류 수출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발표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 관세를 언급하며 강경 대응 의지를 드러냈다.
- 이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으며, 양국이 경제적 무기를 제도화하며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반도체 산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 수출 통제”까지 거론했으며, 중국은 이에 대응해 미국 반도체 기업 Qualcomm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개시한 상태이다.
- 미국 재무장관 베센트는 중국 경제가 침체에 빠졌다고 말하고 있으나, 올해 9월까지 1년간 중국의 상품 수출은 8% 증가했다. 이는 관세로 인해 중국산 제품이 다른 시장으로 더 많이 수출되었기 때문이다.
-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희토류 관련 대외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지만, 이는 중국이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삼고 있는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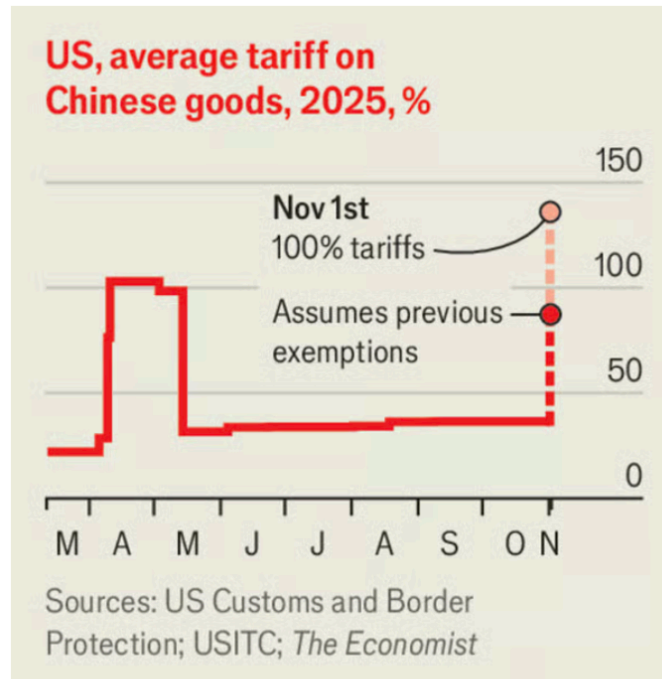


CHART: THE ECONOMIST

Bloomberg 기사

[취업 비자]

WSJ: Chamber of Commerce Sues Over Trump's New \$100,000 H-1B Visa Fee

미상공의, 트럼프 행정부에 10만불 H-1B 비자 소송

- 워싱턴 DC 소재 미상공회의소는 트럼프 행정부의 H-1B 비자 조치를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 이번 소송은 해당 비자에 대해 의회가 부과하는 수수료와 상충되는, 트럼프 행정부의 수수료 부과 권한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수수료는 고용주들이 감당할 수 없는 비싼 수수료라고 주장했다.
- 이미 이 같은 소송을 헬스케어 관련 회사와 노조들에 의해 제기되어 있는 상태다.

WSK 기사

[보험]

WSJ: Runaway Insurance Costs Bring Back Talk of Price Caps

치솟는 주택/자동차 보험료, 상한선 논의된다

- 일부 미국 주에서는 주택 및 자동차 보험료에 상한선을 정하는 조치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루이지애나의 경우는 지나친 보험료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 지난 2020년 이래 주정부들은 주택 보험료는 평균 50%, 자동차 보험료는 평균 42% 인상토록 허용했다. 이는 소비자 물가 26% 상승을 크

게 웃도는 수치다.

- 캘리포니아와 같은 주들은 보험사를 유치하기 위해 상한선을 완화하고 있는 반면에 일리노이주 같은 주들은 높은 보험료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취하고 있다.

WSK 기사

[에너지]

McKinsey&Company: Global Energy Perspective 2025 2025년 글로벌 에너지 전망 보고서

-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년의 에너지 전환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는 두 가지 핵심 주제가 중심이 된다.
- 첫 번째, 에너지 전환의 성공은 1) 에너지의 가격 경쟁력, 2) 공급 안정성 및 안보, 3) 배출 감축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 맥킨지는 분석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무너지면 균형 잡힌 에너지 전환은 불가능하다.
- 두 번째, 탈탄소화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은 없으며, 각국의 경제 구조 및 자원 보유 수준, 그리고 산업 기반에 따라 각기 다른 전환 경로를 밟게 된다.
- 작년에 에너지 배출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파리협정 목표인 섭씨 1.5도와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맥킨지는 세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1) Sustainable Transformation: 2100년 예상 온도 상승 1.9°C 2) Continued Momentum: 2.3°C 3) Slow Evolution: 2.7°C
- 에너지 혼합 전망에 관해서는, 화석연료는 2050년 이후에도 에너지 혼합에서 큰 비중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30년에서 2035년 사이 수요는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주요 대체 연료는 의무화되지 않는 한, 2040년 이후까지 채택될 가능성이 낮은데, 이는 대체 연료가 주로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상용화되기 어려운 구조이다.
- 지정학적 요인은 전망 분석에 큰 역할을 하는데, 중국은 전기화 분야에서 선두를 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 뒤는 북미와 인도가 쫓을 것으로 보인다.
- OECD 국가의 전기화 확산 및 데이터 센터 증가로 인해 글로벌 전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미국, 유럽, 중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재생 에너지원과 가스 발전이 새로운 전력 공급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는데, 2050년까지 61%에서 67% 가량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깨끗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전력원에는 원자력, 지열, 수력 등의 기술이 상용화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에너지 부문의 배출 감소를 위해 탈탄소화에 투자한다면, 잠재적으로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으며, 높은 비용을 피할 수 있다.

McKinsey 보고서 원문

Bloomberg: Oil Holds Losses as Investors Look Ahead to US-China Trade Talks

오일가 하락세 유지...투자자들 미중무역 논의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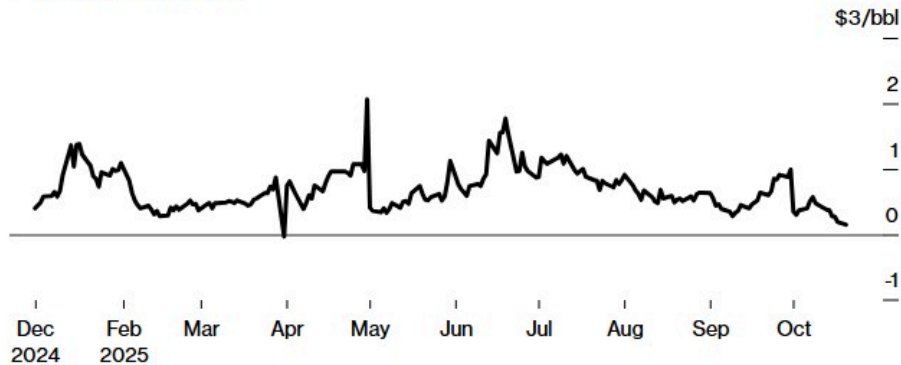
- 투자자들이 미중 무역 논의의 긴장도를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오일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 이번주의 이들 국가간의 회담을 앞두고 브렌트유는 배럴당 거의 61달러로 하락했다.
- 그리고 OPEC+ 국가들이 생산량을 증가시키기로 한 후에 오일 선물가는 올 여름 최고치에서 20% 이상 하락했다.

Oil's Timespread Softens

Investors watch US-China trade tensions, Ukraine-Russia ceasefire talk

✓ Brent's prompt spread



Source: ICE Europe

Bloomberg 기사

WSJ: Green Shipping Plan Is Delayed After Trump Backlash

선주 대상 탄소배출요금, 미국에 의해 지연돼

- 미국의 반대에 부딪쳐 선박에 탄소 배출 서비스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1년 늦춰졌다.
- 미국은 국제해양기구(IMO)의 이른바 넷제로 플랜을 지지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금지 조치, 입항료 부과 등 보복성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했다.
- 현재 글로벌 탄소 배출의 대략 3% 책임이 있는 해양 산업과 관련 오는 2050까지 글로벌 차원에서 제로 탄소 목표를 추진해왔다.

 WSJ 기사

[전기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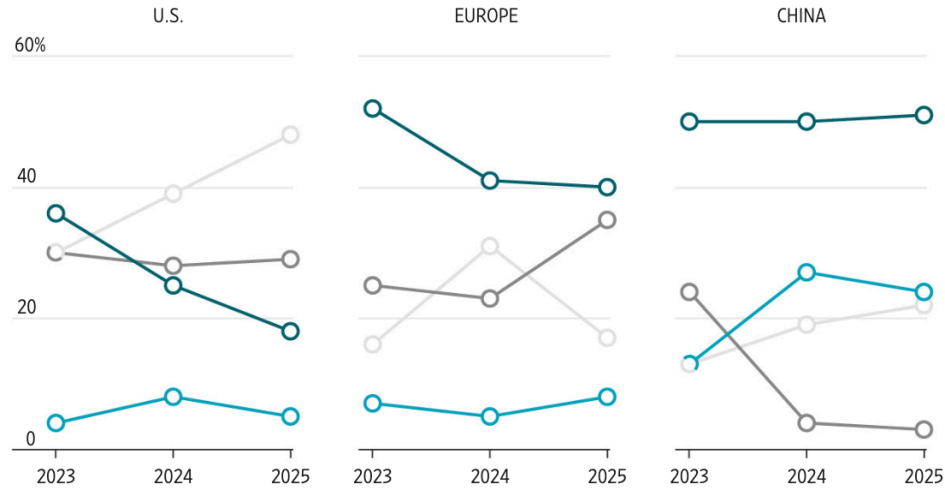
WSJ: The Rest of the World Is Following America's Retreat on EVs

미국의 전기차 후퇴 기조를 따르고 있는 전 세계 국가들

- 전기차에 대한 미국의 후퇴 기조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 GM은 미국 정부의 보조금 및 규제 의무 폐지로 16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발표했다. 캐나다 총리는 내년에 발효될 예정이었던 전기차 판매 의무화를 일시 중단했으며 영국 총리 또한 전기차 전환 목표 시점을 연기했다.
-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조차도 시장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한편 일본은 전기차 대신 하이브리드 중심 전략을 유지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현재 전기차 시장이 소비자들의 수요 부진, 높은 배터리 비용, 불안정한 충전 네트워크, 줄어드는 정부 보조금 등을 고려할 때 수익성이 낮은 구조라고 지적하고 있다.

Vehicle sales forecasts for 2030

■ Electric vehicle ■ Plug-in hybrid ■ Hybrid ■ Gasoline-powered



Source: AlixPartners

WSJ 기사

WSJ: China's Economy Expands at Slowest Pace in a Year

중국 경제 3분기, 올해 목표 미달

- 중국 정부는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같은 분기에 비해 4.8%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 그런데 중국은 올해 5% 목표라는 공식적인 수치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이번 3분기 경제성장치는 향후 5개년 경제 개발 계획을 위한 4일간의 논의를 시작하는 시점에 발표되었다.

WSJ 기사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